

위대한 삶의 기적

기증자 | 강익구 님



혹시라도 기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대의 작은 취향 하나를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만 마시다가 녹차도 한번 마셔보는 것과 같이 간단한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 제인이 불쑥 헌혈의 집에서 조혈모세포기증신청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겐 기증을 하라는, 기증신청이 되었다는 연락조차 오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함에 인터넷을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던 중에 어느 게시판에서 B형 혈소판 공여자를 찾는 글을 보게 되었고, 곧잘 했던 헌혈이니 이왕이면 더 필요로 하는 이에게 하자는 생각만으로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TV에서나 보던 혈액암병동에서 처음 보는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감사하시는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중이었던 아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한 시간 정도 편하게 누워 한숨 자고 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던 시절인 탓에 항상 잠이 부족했고 헌혈을 하는 내내 곤하게 잠들곤 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저를 기

다려주셨고, 아이도 컨디션이 좋을 땐 내려와서 자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곤 했었습니다. 자취하는 제 끼니 걱정에 살림 걱정도 하시고, 이런저런 작은 선물과 배려는 제게 더 큰 감사와 따스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는 사소함에 언제나 더 큰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저는 또 다른 가족을 얻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더 소중한하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작년 봄, 협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강익구씨 맞으시죠? 조혈모세포기증 신청하신 것 기억하세요?" 살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토록 눈물이 흐를 만큼 가슴이 떨리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의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전에 했던 헌혈과 그에 얽힌 일들이 아들에게 마음의 짐이라는 생각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못한 아들 덕분에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어쩌면 조금은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게 가족들의 합의를 이루고 기증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의 조혈모세포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난 건강할까? 한 달 전부터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며 정말 아이를 낳는 산모의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병원은 일부러 제 동생을 만난 그 곳으로 정했습니다. 시설 좋은 1인실에서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하루 더 입원한 후 퇴원했습니다.

이제 기증을 한지 일 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작한 검도에 푹 빠져서 지내니 또 다른 건강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훈장처럼 남아있는 바늘 자국과 작은 감사패까지... 저는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제 평생에 모두 감당 못 할 만큼의 축복이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간혹 기증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질문 내지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은 일종의 기호나 취향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가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벌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테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 또 어떤 '좋은 일과 훌륭한 일'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겐 바로 그런 삶 자체를 꾸려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숭고하고 비장한 결의도 결심도 필요치 않습니다. 행여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호나 취향과 같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 당연함과 사소함으로 한 사람이 그 가족에게, 그리고 귀한 자기 자신에게 일상과 삶을 돌려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닌 행복을 찾아 삶을 꾸려가게만 된다면, 과연 이렇게 작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더 위대한 삶의 기적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기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대의 작은 취향 하나를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만 마시다가 녹차도 한 번 마셔보는 것과 같이 간단한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바로 그 순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기증을 받으신 그 분도 지금은 분명 저처럼 이 좋은 계절과 하늘을 누리며, 이미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저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기증자 | 배명식 님



왼쪽에서 두번째

내가 조혈모세포기증을 했다면 친구들은 하나 같이 묻곤 했을 겁니다. 위험하지 않은지, 아프지 않은지. 이제는 누가 또 묻는다면 나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불편 할 뿐 너무 많은 것을 얻고 느낄 수 있었다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항상 기도 할 테니 수혜자분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벌써 일 년이 훨씬 지났네요. 수기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 일을 다시 떠올려보니 제일 먼저 기증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른 기증자분들의 수기를 보니까 모두 진심으로 흔쾌히 결정하시고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저는 처음 전화를 받고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두 달 전 즈음인가 학교에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친구들과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증신청을 했던 터라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게 전부일 정도로 문외한이었습니다. ‘수술이 위험하진 않을까?’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알려준 협회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정보도 얻고, 먼저 기증하

신 분들의 사연을 보고 힘을 얻어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코디네이터선생님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허락은 끝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부모님 모르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아직까지도 죄송스럽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받게 된 수술은 생각보다 싱거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직도 주위 사람들은 조혈모세포기증이 무슨 큰 수술인 줄 아는데 아무래도 기증이라는 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언젠가 코디네이터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큰 헌혈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잘 끝났고 퇴원하고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닐 정도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왜 그렇게

고민을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 내내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친절히 보살펴 줬던 간호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실에서 편히 쉬다가 퇴원 하던 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수혜자분과 가족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자 새삼 내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스스로 대견스러웠습니다.

내가 조혈모세포기증을 했다고하면 친구들은 하나 같이 묻곤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지, 아프지 않은지. 이제는 누가 또 묻는다면 나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불편 할 뿐 너무 많은 것을 얻고 느낄 수 있다고... 끝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항상 기도 할 테니 수혜자분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기억

기증자 | 오재광 님



수술한지 2년여 기간이 흘러 어느 정도 사업도 안정되고 몸도 이상 없이 잘살고 있다. 2백3일의 시간이 나에게서는 바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마지막 소중한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혈모세포은행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조혈모세포기증을 한지 1년 6개월이 흘러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잊혀질 즈음 낯선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찍혔다. 혹 업체고객님인가 싶어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린서비스 대화점 오재광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했는데 아 글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라며 기증자 수기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무심결에 "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글재주도 없고 속스럽기도 하고 해서 메일을 보내지 않고 2주일이나 흘러 또 한번 전화부탁을 받은 후 어렵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군 제대 후 예비군, 민방위훈련장에서 훈련받기 싫어 현혈을 하고는 했는데 언젠가부터 민방위훈련장에 현혈차량이 오지 않아 회사근처 현혈의집으로 갔다. 손에 잡히는 작은 책자를 현혈침대에서 보았는데 조혈모세포기증을 한 기증자와 수

혜자에 대한 이야기로 작은 감동을 느꼈다. 현혈의집 간호사와 상담 후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당시에는 신청 후 바로 조혈모세포기증 수술을 하는지 알고 회사를 며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 평상시 건강한 편으로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았기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맛있는 음식(어릴 때 병원에 가면 바나나, 복숭아, 싹싹이주스를 먹었던 게 생각났다.)도 먹고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신청 후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회 누구라며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는데 기증할 수 있는지, 기증이 가능하면 한번 방문 하겠다고 물어 왔다.

당시 전화통화시에는 앞뒤 생각 안하고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했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짐사람한테 말했더니 걱정스런 얼굴로 하



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환자가 아직도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자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언제 한번 할 수 있겠냐고 설득을 했다. 집사람은 동의했지만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 부모님께서서는 강하게 반대하시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지방출장 간다고 하기로 했다. (평소 헌혈하는 것도 매우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기에...)

당시 십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막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대기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외에는 별 어려움 없이 약 한달 간의 기증대기기간이 흘렀다. 수술전날 오후에 입원 담당코디네이터의 친절함 안내와 편의제공 등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

다음날 오전 8시에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침대에 누운 후 눈을 떠보니 수술은 끝나고 입원실이였다. 둘째아이가 어려서 병원에 오지 못했던

집사람이 옆에 서있었다.

담당 코디네이터선생님 얘기로는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아프지도 않았다. 하루 더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퇴원했다.

수술한지 2년 가까이 흘러 어느 정도 사업도 안정되고 몸도 이상 없이 잘살고 있다. 2박3일의 시간이 나에게는 바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마지막 소중한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혈모세포은행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연

기증자 | 이경한 님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대해 대단하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겪어 본 나는 지금 뒤돌아보면 별다른 일을 겪은 것 같지 않다. 그리 힘들지도 않았고, 하고 나서의 보람됨이랄까 그런 뿌듯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누군가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다는 게, 참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다. 항상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며...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걸까? 내가 이제껏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까? 처음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옛날 어느 날 그 누군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의 조혈모세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대답하지는 못하였다. 두려움도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참 나에게도 이런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등등의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참을 고민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그 때 그런 고민을 할 때에 그 누군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2001년 그 때의 나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도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때의 기억을 잊어가고 있을 때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전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던 수혜자

가 또 다시 아프다고 했다. 솔직히 뜨끔했다. 내가 그 때 잘못된 것을 주었을까? 웬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니 미안스럽기도 한 마음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지 하는 마음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5년.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글을 좀 써줄 수 있겠느냐고. 예전에도 이런 전화를 받았었지만, 끝내 글을 못 쓴다는 핑계로 써 드리질 않았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죄송한 생각이 든다.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같이 하진 못할망정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많이 게으른 내 자신을 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한 육체에 대해 별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예전 보다는 많이 바뀌어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신의 건강을 많이 챙기면서 살고는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육체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 또한 나를 좀 더 다듬으며, 챙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젠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으려나?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참 좋은 느낌이 든다. 또한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든든하기도 하다. 더불어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 비록 일상의 연은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나

와 같은 그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남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좋은 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몸 어느 것을 준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대해 대단하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겪어 본 나는 지금 되돌아보면 별다른 일을 겪은 것 같지 않다. 그리 힘들지도 않았고, 하고 나서의 보람됨이랄까 그런 뿌듯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누군가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다는 게, 참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다.

항상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며...